

Uwe Hirth-Schmidt

첼리스트

독일 라아 태생의 첼리스트 우베 힐트-슈미트는 독주자 및 실내악 연주자로서 유럽과 북미, 일본에서 순회 연주등으로 한 해 80 여회가 넘는 연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십여년간 모든 연주를 암보로 함께 연주한 자크-티보 트리오와의 링컨 센터 라이브 CD, 클리브랜드 라이브 CD를 비롯한 그 동안 발매된 일곱 장의 CD와 함께 라디오, TV, 음악 잡지 등에서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들어왔으며, 작년에 발매된 잘츠부르크 솔리스트들과 아마티 앙상블과 함께 연주한 CD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탑 10에 올랐다. WNYC 뉴욕, 보이시 업 어메리카, NPR 오늘의 연주, WQED 피츠버그, 라졸라 아웃리치 TV, KUHF (NPR) 휴스턴, 세인트 폴 썬데이, 도이칠란드 라디오, RBB 라디오 쿨투어의 “클럽”, 라디오 브레멘, 쥬드 웨스트, SFB, NDR 등을 비롯한 많은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을 통해 연주가 방송되었다.

우베 힐트-슈미트는 독주자, 실내악 연주자로서 세계의 주요 무대인 뉴욕 카네기 홀, 링컨 센터, 베를린 필하모니,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런던 위그모어 홀, 암스테르담 콘체르트 게바우, 함부르크 무직 할레, 뮌헨 막스 요셉 홀, 브루셀 필하모니 등에서 연주 하였고, 시카고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를 비롯한 바하, 피닉스, 달라스, 라졸라, 호놀룰루, 로저, 밀 벨리, 펠드만, 버팔로우, 윌리엄스버그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와 본 베토벤 페스티발, 브루셀 무지카 운디, 라인가우, 메인리 모짜르트, 사우트 쇼어, 아카데미, 난투치, 사코 리버, 그린 레이크, 피스폴 밴드, 알부케르크, 고슬라-하즈 페스티발, 볼티모어 슈라이버 홀 시리즈, 아마티 캄머 무직 시리즈 등을 비롯한 여러 국제 음악 페스티발과 연주 시리즈에서 다수의 초청 연주 및 마스터 클래스를 겸하였다.

바로크, 낭만, 현대에 이르는 넓은 레퍼토리로 카메라타 빈, 노이에 브란덴부르거 필하모니, 바덴-뷔르템베르그 오케스트라, 칼스루에 페어반트-블라스 오케스트라, 용에스 앙상블 베를린, 리체 오케스트라, 심포니슈스 블라스 오케스트라 게르메스하임, 오르테나우 오케스트라 오펜부르그, 베를린 콜레기움 무시쿰 오케스트라, 모짜르트 앙상블 챔버 오케스트라, 스포어 챔버 오케스트라, 슈트라스부르그 챔버 오케스트라, 잘츠부르그 솔리스트 챔버 오케스트라 등 많은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로서 협연하였다.

수상 경력으로는 트라파니 국제 콩쿨, 카르타니제타 국제 콩쿨, 포르코방 음악 콩쿨, 바덴바덴 음악 콩쿨, 전 독일 음악 콩쿨, 쥬드 웨스트 도이치 음악 콩쿨 등에서 1위를 비롯하여 상위 입상하였으며, 2년에 한 번씩 가장 활동이 많은 음악가에게 주어지는 오펜부르그 음악상 등을 수상하였다. 베를린 국립 음악 대학 (U.D.K.) 베를린 필하모닉 수석을 역임한 교수 볼프강 뵘처에게 사사하였고 졸업 후에는 에센 음악 대학에서 블라디미어 멘델스존 교수를 사사하며 전문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였다.

우베 힐트-슈미트는 프린스턴 대학, 코넬 대학, M.I.T.대학, U.C.L.A.대학,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 샌 프란시스코 주립대학, 듀크 대학, 퍼듀 대학, 카네기 멜론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 휴스턴 라이스 대학, 오하이오 주립 대학, 오하이오 위스레이안 대학, 코네티컷 대학, 남유타 대학, 유타 주립 대학, 산 디에고 주립 대학, 아리조나 주립 대학, 포트 하이즈 주립 대학, 알라바마 대학, 하와이 대학, 네브라스카 대학, 보이즈 주립 대학, 메토디스트 대학, 브리감 영 대학, 몬타나 대학, 멤피스 대학, 위트롭 대학, 엘론 대학, 대만 타이난 대학과 펜실베이니아 음악 아카데미, 위스콘신 루테란 컬리지, 펄크체이스 컬리지, 쇼어라인 컬리지, 바드 컬리지, 메르시허스트 컬리지, 팜 비치 컬리지, 루터 컬리지 등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통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동안 데이비드 갈롭, 기오르기 쉬빅, 라즈로 바가, 카이오 파가노, 성 페테스부르그 퀼텟등을 비롯한 수많은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하였고 현재 솔리스트로 활동하며 실내악 연주자로서 피아니스트 요르그 데무스와 아마티 앙상블과 함께 정기적으로 연주하고, 모짜르트 앙상블, 모르페우스 현악 사중주단, 피아노 트리오, 듀오와 잘츠부르그 솔리스트들의 멤버로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이태리, 스페인 등 유럽을 주무대로 활동중이고 매년 일본 순회 연주를 하며, 악기는 조세페 달 알리오를 사용하고 있다.

우베 힐트-슈미트의 연주에 대한 주요 신문 연주 평으로 '뉴욕 타임즈' 지의 '벌써 오래전에 세계 정상에 올랐어야 할 성공이 확고한, 사명을 가진 음악인', '베를린 모르겐 포스트' 지의 '베를린 필하모니에서의 생상스 협주곡 2번과 쇼스타코비치 1번 협주곡은 여러 실내악 연주로 전 세계를 누비는 첼리스트의 제2의 솔로 커리어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다'며 앞서 '뉴욕 타임즈'에서 언급했듯이 '현란한 테크닉과 유연한 리듬감, 넘치는 정열, 귀 기울일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음색으로 가득 찬 생명력이 넘치는 첼리스트이기에 앞으로 더욱 자주 연주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되는 음악가', '프랑크푸르트 알게 마이너 자이퉁' 지의 '훌륭한 기교와 음악성, 정교함과 정열을 지닌 노련함, 음악적인 자각과 신선함을 지닌 음색', '멜본 프레스 저널' 지의 '순수한 벨벳같은 음색', '웨스트 도이치 자이퉁' 지의 '자연스럽고 노래하는 듯한 음악과 따뜻한 음색', '찬란하고 눈부시게 분출되는 듯한 빛나는 색조', '슈베비슈 자이퉁' 지의 '타고난 음악성과 정열로 가득 채워진 심오한 음악으로 관중을 사로잡는 첼리스트', '우스터 텔레그래프 가제트' 지의 '비범한 감각을 가진 테크닉의 달인, 모든 재능을 가진 뛰어난 음악가', '바디셰 자이퉁' 지의 '무게를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움 그 자체', '큰 기쁨과 여유를 함께 가지고 연주를 즐기는 경험 많고 노련한 젊은 거장의 연주는 한 마디로 클라이막스였다.', '미텔 바디셰 자이퉁' 지의 '화려한 테크닉, 무대 위에서의 연주에 대한 큰 즐거움과 정확성, 빛나는 여러가지 음색, 신념과 확신을 가진 곡 해석', '뉴욕 필하모니 수석 라자로 바가'는 '그의 예술성에 탄복했다', '스테레오 플레이'의 '알프레드 보종'은 '안네 소피 무터, 쥘라나, 로스트로포비치의 레코딩을 능가하는 탁월한 연주', '스트링 매거진'의 '로렌스 비츠'는 '아주 드물게 접하게 되는 음악의 힘과 성취감', '라 프레스' 지의 '높은 수준의 기교, 음악성, 영감은 마치 모든게 하나인 듯한 착각을 만들어냈다', '오가쿠 노 토모 매거진'의 '성숙하고 환상적인 음악', '휴스턴 크로니클' 지의 '강하게 우러나오는 음악에 대한 열정은 대 성공을 이루어냈다.', '라이니셰 포스트' 지의 '타고난 큰 재능을 음악에 모두 쏟아 만들어 낸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연주', '달라스 모닝 뉴스' 지의 '매혹적이면서도 힘이 있으며 특별한 감성이 넘치는 음악성', '스트라드 매거진'의 '기교와 정열이 합쳐진 대담함, 따뜻함, 인간적인 느낌이 모두 함유된 날카로운 지성의 음악 추출물이 순간 순간 가슴을 파고드는 듯한 짜릿한 전율이 멈추지 않는 연주', '퍼스트 클래스 테크닉과 예외적인 음악성을 가진 첼리스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지의 '권위가 넘치면서도 따스한 인간미로 가득 찬 연주는 대 성공을 이끌어냈다.' 등이 있다.